

# 이용섭 광주시장 “어등산, 민관 공동개발도 검토하겠다”

김익주 의원 시정질문에 대장동 논란인 민관공동개발 첫 언급

## “민간개발 실패 가능성, 공공개발도 함께 검토” “재정압박 고려 긍정적 효과 최대화 방안으로”

16년째 표류중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5일 시와 민간이 공동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김익주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사업자를 재검토하면 개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광주 시, 도시공사, 민간사업자가 공동 개

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도시공사의 공공 개발은 언급했지만, 대장동 개발의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관 공동개발 언급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사업자의 재정위기, 사업 포기, 행정소송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조건으로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 또는 민관 공동개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개발 내지 공동개발의 경우 광주시와 도시공사 재정 압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와 우선협상 문제가 해결되면 좌고우면하지 않

고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30일 서진건설과의 협상 결렬과 관련, 기자들을 만나 사업자 선정을 민간공모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이 시장은 당시 “지금처럼 민간공모로 할 것인지,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겠다”면서 “도시공사가 다른 곳과 함께 해서 전체(개발)를 할 것인지, 도시공사가 기반공사만 하고 우리가 필요한 호텔이나 킬러콘텐츠를 채우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갖춰 진행할 것이며 끝나면 깊이 있게

고민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한 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어등산 개발과 관련해 ‘광주시와 민간의 공동개발’이 43.9%, ‘광주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38.2%,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개발’이 8.6%로 민관공동개발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은 지역의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수차례 진통 끝에 2019년 7월 사전검토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올랐지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말 사전검토 축이 일부 승소한 뒤 시의 항소포기로 1월부터 재협상이 진행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까지 군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지만 16년째 사업이 표류하면서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가을엔 전남서 온가족 여행 즐기세요”

전남도, 곡성 압록상상스쿨·순천만습지 등 추천



의 분향 백양사, 장성호수변길, 필암서원 등 자연 속 관광지가 많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 순천만습지는 2006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39.8km의 해안선에 둘러싸인 21.6㎢의 갯벌, 5.4㎢의 갈대밭 등 27㎢의 하구 염습지와 갯벌로 이뤄진 갈대밭이 장관이다.

흑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저어새 등 국제적인 희귀조류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철새 11종이 날아드는 곳으로 전 세계 습지 가운데 희귀조류가 가장 많다. 이외에도 도요새, 청둥오리, 흑부리오리, 기러기 등 약 140종이 월동하거나 번식하고 있다. 생태체험선을 타면 가장 근접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다.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 4.6km를 오가는 스카이 큐브와, 문학관역에서 순천만습지까지(1km) 갈대탐방로를 운행하는 진환경 전기 갈대열차는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순천만국가정원에는 79만 그루의 나무와 315만 본의 꽃 등이 심어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열릴 예정이다.

주변 낙안읍성에는 98세대 228명이 실제 거주하며 성곽, 관아 건물, 소담스런 초가, 고즈넉한 돌담길과 각종 전통체험을 즐길 수 있다. 어르신들은 옛 추억의 향수를 느끼고, 아이들은 선조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전남도는 깊어가는 가을 ‘가족과 떠나는 오묘한 행복 여행’을 위해 곡성 압록상상스쿨, 장성 황룡강변 꽃공원, 자연생태의 보고인 순천만습지를 10월 전남 안심관광지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곡성 압록상상스쿨은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옛 압록초등학교 부지에 위치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등이 함께 꿈과 상상의 나래를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연기, 댄스, 보컬, 유튜브 등 문화예술 분야 전문 직업체로부터 키즈카페, 카페테리아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공간이다. 또 미니가차 547m 타기, 모험용 출렁다리, 짚라인 등 다양한 휴식 문화공간을 갖췄다.

장성 황룡강변 꽃공원은 강변을 따라 4개월 노란꽃과 나무가 가득하다. ‘엘로우시티’ 장성담계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해바라기 등 노란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황룡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문화대교, 장미터널, 힐링정원, 정안교, 연꽃단지, 황미트랜드까지 이어지는 꽃길은 인생사진의 핫플레이스다. 인근에 가을 여행지 하면 울긋불긋 예기단풍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온·오프라인 관람객 20만명 돌파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 만에 온·오프라인 관람객 20만명을 돌파했다.

5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현장 관람객은 목포·진도 주 전시관에 1만 9263명, 광양·광주 등 4개소 특별전

에 1만6956명, 9개 시·군 기념전에 1만4218명 등 총 5만437명이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미술관·영상관 등)에는 관람객 16만300여 명이 방문했다. 이는 전체 관람객의 76%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3만2000여 온라인 관람객이 몰려,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전시 관람 문화를 이끌었다.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누적 관람객 수는 21만737명으로, 당초 관람객 목표 30만명의 70%를 넘어섰다.

온라인 비대면 관람객 전체 76% 보물찾기·웹드라마 등 인기몰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관람객이 많은 것은 목표문화예술회관(비엔날레 1관)의 사전예약제와 정부 미술관 기준보다 강화한 관람 인원 제한 등으로 현장 관람보다는 온라인 관람을 유도한 것이 주효했다.

추석 명절을 활용한 온라인 미술관 보물찾기 등 이벤트와 현실감 있는 VR 전시관, ‘총감독이 간다’의 수목 영상관, 수목 웹드라마, 수목 토요시네마 등 온라인 영상관을 통해 서면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콘텐츠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장성군 1위-영광군 2위

전남도 올해 순천·무안 등에 5곳 추가 확충



전남 장성군이 운영 중인 임대농기계 사업소. (사진=장성군 제2공)

전남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50개 우수 시·군 중 11곳이 선정돼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됐다. 5일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장성, 영광, 신안,

곡성, 해남, 화순, 무안, 영암, 나주, 강진, 순천이다. 특히 장성은 전국 1위, 영광은 2위를 차지했다.

전남도가 농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발작물 주산지 임대농기계 지원과 영농철 공휴일 휴무 없는 임대사업소 운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책도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았다.

전남도는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각 2억원씩 총 22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해 임대사업소의 농후 농기계를 신형 농기계로 대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전국 146개 시·군, 469개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경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올해 성과는 전남도와 시·군, 지역 농업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임대사업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여수 등 21개 시·군에 67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트랙터와 콤팩트 등 총 1만272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1 느단 96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진선 (950413-1054614)  
 최 후 주 소 :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80, 5동 201호(월곡동, 하남금호타운)

위 망 이진선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1년 10월 6일

공 고 인 : 이명환, 윤선희.  
 주 소 :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80, 5동 201호(월곡동, 하남금호타운)  
 한정승인수리일 : 2021년 9월 23일  
 공 고 기 간 : 2021. 10. 6 ~ 2021. 12. 6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1 느단 3663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최영숙 (461028-2560416)  
 최 후 주 소 : 광주 광산구 산월로 80, 1302동 1002호(산월동, 부영사랑으로)

위 망 최영숙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1년 10월 6일

공 고 인 : 전현중.  
 주 소 : 광주 남구 효천중앙로 21, 106동 605호 (임암동,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리비타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1년 9월 30일  
 공 고 기 간 : 2021. 10. 6 ~ 2021. 12. 6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책임에서 제안한 슬로컨셉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